

광주·전남 지자체 출·퇴근 시간 파괴 확산

구청은

보건소는

“아침형 인간” “직장인 진료” 회의 빨리 퇴근 늦게

최근들어 광주·전남 지자체의 출·퇴근 시간 게트리가 유혈처럼 번지고 있다. 경찰 조직도 한 시간 빨리 출근하기를 통해 내부 기강을 다지고 서비스 향상을 외치고 있다. 출·퇴근시간 깨기 뿐 아니라, 토요일 일하기·혁신 아이디어 회의·회의 방식 변화 등 관행 파괴 바람도 일고 있다.

토요일 행사 부활 추진 경찰청은 아침 캠페인

무보고를 청와대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받는 것과 맥이 같다. 광주시 북구청은 주간 실적보고회 등 회의방식을 바꿨다. 단순한 실적보고를 넘어 현안 해결을 위한 난상토론 방식으로 바뀌었다. 서울을 없앤 회의 분위기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탈 권위’와 ‘효율성’을 내세워 불필요한 허물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북구청은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없어지다시피한 토요일 행사를 다음달부터는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광주시 서구청의 경우 변화의 진원지는 전주엔 청장이다. 전 청장은 새벽 4~5시에 일어나 주민 자치센터(과거의 동사무소) 순시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미다. 현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 업

보건소는 28명으로 2개 자율진료반을 구성해 진료·검진·접종·건강증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물리치료실에는 발 마사지기, 안마기 등을 설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세는 전남지역의 경우도 비슷하다. 화순군은 지난 13일부터 공직자 1시간 일찍 출근하기를 전개하고 있고, 여수시는 간부회의를 꼭두새벽인 오전 7시로 변경했다.

광주·전남경찰청도 최근 오전 9시에 열린 간부회의를 40분 앞당겼다. 또 직원들은 아침마다 주요 도로에서 법질서 예방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민 서비스 향상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서구청 관계자는 “일찍 출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능률보다는 걸치레에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희 생가보존회장 피살 “우발적 단독 범행”

대구지법 김천지원 최영락 판사는 27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김재학(81) 생가보존회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김씨에 대해 영상실질심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의 중대성으로 미뤄 영장을 발부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생가보존회장의 머리와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 구미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 중간발표를 통해 “용의자 김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평소 결벽증으로 보일 정도로 주변 정리나 청소가 집착했다고 생가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단 비정상적 행동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의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모텔 객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불법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7일 불법 현장을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임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 횡수,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재산적 피해 정도에 비교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불법 어음 할인 840억 편취

전남 건설사 대표·임원 등 무더기 적발 부채 누락 알고도 눈감아 준 회계사도

허위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작성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 받아 회사를 운영하다 800억원대의 부도를 낸 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와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은 27일 불법 ‘용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할인받아 840억원을 가로챈 전 G건설 대표 박모(41)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부사장 박모(48)씨 등이 회사 임원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회계감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부채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 조모(45)씨와 이 회사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광양시청 공무원 이모(44·6급)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63개 협력업체·자회사 등과 짜고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산서를 작성해 불법 용통어음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작년 한해 동안 715차례에 걸쳐 3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870억원의 용통어음을 할인받아 이중 840억원을 가로챈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통어음은 실제 상거래 없이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신용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으나 G사는 추후 하도급 공사 발주를 대가로 협력업체들과 사전 공모해 불법 어음을 발행해왔다.

G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처럼 어음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 회계감사인 조씨의 감사 보고서 때문이었다.

조씨는 2년에 걸쳐 370억원 상당의 부채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파악하면서도 흑자로 둔갑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였던 G사는 8개의 자회사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전국 건설도급순위 275위에 올랐지만, 지난해 말 부도가 나면서 60여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IG大生들 건설현장 체임

광주시내 토목전공 대학생들과 건설기술자들이 27일 상무지구 무진로(광로 7호선)~윤남택지간 도로개설 현장에서 시공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는 대학생들에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형 건설사서 홍보를 위해 분기별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27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헤어질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김모(35·서울시 용산구)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5월까지 박모(여·35·북구 두암동)씨

를 음해하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28회 게재하고, 박씨 주변인들에게도 12차례 이메일을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 광주 모 초등학교 동창인 박씨를

헤어진 애인 ‘인터넷 음해’ 30대 구속

만나 한 달여 가장 사귀 뒤 헤어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음해성·음란성·욕설 등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보내고 인터넷 포털 등에도 게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친구 등 지인의 인터넷 IP 주소를 도용해왔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을 구경하던 심씨는 현씨가 다른 운전자와 사고 책임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갑을 현장에 떨어뜨리는 것을 봤는데, 경찰에서 “지갑을 보고 순간 탐이나 못된 짓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469) 김장두



다중주택·상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량량형

교통사고 피해자 지갑 주위 줄행랑

○광주북부경찰은 27일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지갑을 몰래 훔쳐 달아난 식당 배달원 심모(35·북구 윤남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전날 밤 1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한 고등학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현모(35)씨의 차량 주변에서 현씨의 지갑을 주워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심씨는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중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 3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a 'Hwangsan Janggagi' (황산 장가제) event. It features a golfer in the foreground and a list of prizes on the right. The prizes include a 1000cc car, a 1000cc motorcycle, a 1000cc scooter, a 1000cc bicycle, a 1000cc motorcycle, a 1000cc scooter, a 1000cc bicycle, and a 1000cc motorcycle. The event is organized by Kwangju MBC Community Center.